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학업열의와 학습무기력을 매개로

조효제

충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와 학습무기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분석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열의는 학업무기력과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교육적 기대, 학업적 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학업무기력은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과 부적의 상관이 나타났다. 교육적 기대는 학업적 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습무기력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학생인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업열의와 학습무기력 각각의 매개효과가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바,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를 매개하여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제어 : 교육적 기대,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열의, 학습무기력, 매개효과

I. 서론

인간은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자아개념이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타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며, 이는 자신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포함한다(곽이랑, 김경성, 이수영, 2016). 자아개념에 대해 송인섭(1982)은 3차원 위계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정점에 자아개념을 두고, 학업적 자아개념, 중요타인자아개념, 정의자아개념 3개의 2차 요인으로 분화하였다. 이때 학업자아개념은 학급, 능력, 성취로, 중요타인자아개념은 사회, 가족으로, 정의자아개념은 정서, 신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3가지 요인 중 학업자아개념, 특히 학업성취와 관련된 부분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우선 학업적 자아개념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적 자아개념이란 학생들의 학급이나 학교에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학습 기대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과 존중감, 만족감 등을 말한다(김마리아, 2013). 박상현, 손원숙(2019)은 학업적 자아개념을 학업능력에 대한 인식 또는 평가라 하였으며, 김용래, 김태은(2001)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에 대해 자신의 경험,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신의 견해와 느낌 등을 기반으로 한 평가적인 태도나 신념의 정도라고 하였다. 이수정(2009)은 학생들의 학교공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며, 성적과 성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런 노력에 대한 지각, 공부경험을 기반으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도, 학교생활에서의 대인관계 지각에 대한 자기의 수용, 만족, 학습과 관련된 외적 행동의 적극성과 소극성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관점의 기초라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학업적 자아개념은 자신의 학업기대, 학업성취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업적 자아개념은 학업의 지속여부와 더불어 삶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2019년 「김해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업유지,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1위는 학업부적응(47%), 2017년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에 따르면 학교생활 불만족 1위는 공부(성적, 진학 등)의 어려움(36.4%)으로 나타나 학업성적 만족도 및 진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하남시청소년사회환경조사」에 따르면 자살 생각 여부 및 자살의 큰이유에 대해서, 죽고 싶다는 가장 큰 이유로 가족간의 갈등(32%), 다음으로 학교성적(28.6%)을 뽑았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특히 학생에게 부모(보호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영향력을 받으며 성장한다. 부모의 아동에 대한 영향력은 삶에서 아동에 대한 기대를 통해 드러난다. 부모의 기대는 아동학 또는 가족학에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련지으며, 이는 사고,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지각과 해석에 영향을 준다(홍혜선, 2012). 부모가 자녀의 교육적 기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김마리아(2013)은 교육적 기대수준을 부모의 관심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박남수, 박서홍(2010)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하여 부모가 갖는 기대, Seginer(1983)은 고등학교 졸업과 같이 자녀가 수학하기를 원하는 교육기간을 의미하기도 하며(홍혜선, 2012 재인용), 심수경(2005)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서 갖는 교육적 관심이나 압력 수준을 뜻하며, 그 요인으로서는 성적, 석차, 가정학습 상태, 시험 준비 등 자녀교육에서 갖는 기대심리라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교육적 기대는 자녀의 학업성취,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 및 관심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권현자(1988), 권재기(2001)는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으며, 김선희(2015)는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고, 교육적 기대가 낮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임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학업성취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서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9세-17세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으로 ‘숙제나 시험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은 64%,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라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함께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도 줄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선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통해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것과 함께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이 학생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심리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심리상태와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학업열의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내적으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학업

에 대해 집중하게 해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력을 뜻하며(이자영, 2013), 학업무기력이란 학업상황에서 학습된 무기력 발생의 근본기제와 현실의 교육 환경적인 특성이 결합된 무기력 행동의 심리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한익, 이현아(2010)는 학업열의와 성취목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밝혔고, 이미라, 전향신(2020)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였다. 여태철, 임호진, 황매향(2017)은 학습된 무기력과 학습전략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최현정, 이동귀(2019)는 학습된 무기력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학업 실패내성, 회복탄력성과 부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중학생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교육적 기대가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열의, 학업무기력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그리고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각각 매개변인으로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중학생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열의, 학업무기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와 중학생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와 중학생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수경(2005)은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김난옥, 김양분(2015)는 부모의 교육기대수준과 가치관이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국어, 영어, 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국어의 경우 기초에 비해 보통, 영어의 경우 보통에 비해 우수, 수학의 경우 기초미달에 비해 기초, 보통에 비해 우수수준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었음을 보였다. 김마리아(2013)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학업적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 및 학업자아개념은 더 높아짐을 보였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의 연구에서는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김진아(2016)는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간섭이 높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생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김수혜, 황여정(2010)은 부모의 교육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학생의 교육포부는 더 높아짐을 보였다. 선혜연, 황매향, 정애경(2011)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은 청소년들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Mau, W. C. (1997)은 미국 10학년 아시안 이민 학생들, 아시아계 미국 학생들, 백인 학생들 집단 비교에서 아시안 이민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 집단에서는 부모의 교육기대가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였다. Carranza, F. D., You, S., Chhuon, V., & Hudley, C. (2009)는 멕시코계 미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교육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학업적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Froiland, J. M., Peterson, A., & Davison, M. L. (2013)은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Early Child Longitudinal Study-Kindergarten Cohort(ECLS-K)의 7,600명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관여와 기대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가 조기에 아동기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였다. Jackson, L. J., Ford, J. R., James, B. A., Schleiden, C. A., Harris-McKoy, D., & Holcomb, J. E. (2020)은 High School Longitudinal Study(HSLS)의 흑인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수학 성취도 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2. 학업열의

학업열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부모의 교육적 기대보다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임효진, 이소라(2020)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릇을 매개하여서 역시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권은경(2020)은 부모관계가 좋을수록 중학생 자녀의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염혜선, 이은주(2020)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의 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력을 주었음을 밝혔고, 김혜원, 장윤옥(2016)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가 적정성과추구, 학습선택권부여의 행동을 많이 할수록, 학업진보격려의 학습관여행동을 적게할수록 학업열의가 높아짐을 보였다. 이 때 적정성과추구란 학습목표를 설정하는데 자녀가 목표를 참여시켜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며 학업진보격려란 자녀의 학습행동이나 성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가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는 행동을 뜻한다. 조수현, 이민영, 이장희, 이상민(2018)은 고등학생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상, 또래지지, 교사 자율성지지, 부모 학업적 지지가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Chen(2005)은 홍콩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녀가 인식한 학업지원(부모, 교사, 또래)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업열의가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 학업열의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Furrer, C. & Skinner, E. (2003)의 연구에선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사, 또래의 관계와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에서 학생의 참여(교실에서의 행동적, 정서적 참여)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변수인 학생의 참여는 교사가 보고한 변수와 학생이 보고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두 변수 모두 매개효과가 있었다. Plunkett, S. W., Behnke, A. O., Sands, T., & Choi, B. Y. (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참여가 자녀의 학업열의를 매개하여 성적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부모의 참여 변인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력을 미친 것은 모의 모니터링, 학교 공부 도움, 공부에 대한 조언, 부의 모니터링이었다.

3. 학업무기력

학업무기력은 학습된 무기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부정적인 결과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반복하여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성인경, 2017). 학업무기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관계, 성취압력,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고재량(2012)은 학업스트레스, 인터넷중독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연구에서 학습된 무기력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았고, 박연수(2019)는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역기능적 태도를 통해 학습된 무기력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밝혔다. 김은영(2009)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학습된 무기력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를 통해 학습된 무기력과 학업성취도가 부적적인 상관을 이루고 있으며, 학습된 무기력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하위변인들 중 자신감 결여, 우울성, 수동성, 책임감 결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임경희(2004)의 연구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자녀의 관계가 있으며,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은 학습된 무기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을 이루는 하위 요인으로는 가정분위기,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부부관계로 구성되었다. 황은주, 윤선아(2017)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습된 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의 경우 불안정한 감정기복, 모의 경우 자기표현제한, 애정철회, 죄책감유발이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끼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업무기력과 관련된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iener, C. I., & Dweck, C. S. (1978)의 연구에서는 무기력한 학생들은 실패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하며 실패의 원인으로 생각하였지만, 숙달 지향적인(mastery oriented) 학생들은 실패를 통해 이를 자기성찰(self monitoring)과 자기 지시(self instruction)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학업 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ncham, F. D., Hokoda, A., & Sanders Jr, R. (1989)의 연구에서는 시험적 정과 학습된 무기력이 학업성취와 부적적인 상관이 있으며, 3학년에서 5학년으로 연령이 커질수록 부적상관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1차자료(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표본은 2018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의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는 KCYPS 2018 보호자 조사항목의 문항을 활용하여 3개 항목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문항으로는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18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못함 ~ ⑤매우 잘함, ⑥잘 모르겠음)’,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18년도 1학기)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못함 ~ ⑤매우 잘함, ⑥잘 모르겠음)’, ‘귀하는 전반적으로 자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①고등학교 졸업, ②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③4년제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⑤ 잘 모르겠음)’으로 구성하여 3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모든 문항의 ‘잘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학업열의

학업열의는 KCYPS 2018 아동·청소년 조사문항 학업열의항목 1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나는 공부란 도전에 불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점 척도로(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나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이루어져있다. 학업열의 문항 16개를 평균을 내어 구성하였으며 문항신뢰도는 .937로 나타났다.

3) 학업무기력

학업무기력은 KCYPS 2018 아동·청소년 조사문항 학업무기력항목 1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으로는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 힘으로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으며 각각 4점 척도로(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나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구성되어 있다. 학업무기력 문항 16개를 평균을 내어 구성하였으며 문항신뢰도는 .933으로 나타났다.

4)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적 자아개념은 KCYPS 2018 아동·청소년 조사문항 중 학업성취영역 2개 문항과 진로영역 중 장래희망 교육수준 문항 1개 총 3개 문항을 평균을 내어 활용하였다. 학업성취영역 2개 문항은 ‘지난학기(2018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못함~⑤매우 잘함, ⑥잘 모르겠음)’과 ‘지난학기(2018년도 1학기) 학교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못함~⑤매우 잘함, ⑥잘 모르겠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래희망 교육수준문항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할 계획입니까?(①고등학교 졸업, ②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③4년제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⑤ 잘 모르겠음)’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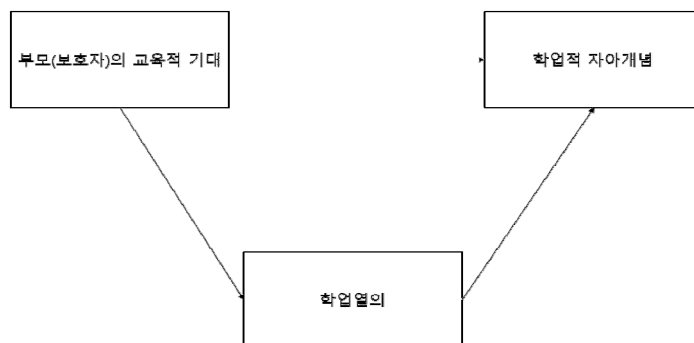
<표 1> 측정문항 영역 및 대표 문항

영역	하위 요인	대표 문항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	보호자관점에서의 자녀의 학업성취정도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18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자관점에서의 자녀의 학교성적 만족도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18년도 1학기)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보호자관점에서의 자녀의 희망 교육 수준	귀하는 전반적으로 자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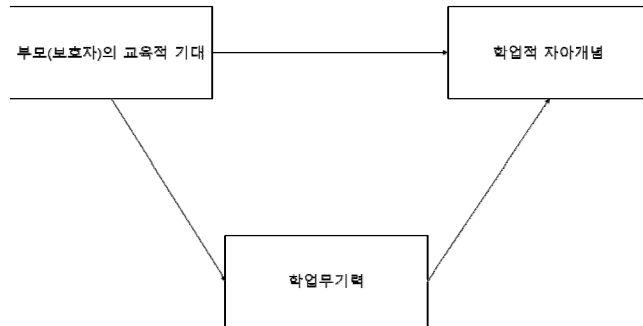
영역	하위 요인	대표 문항
학업 열의	학업열의 (16문항)	-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학업 무기력	학업무기력 (16문항)	-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내 힘으로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업적 자아개념	학생의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지난 학기(2018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학교 성적 만족도	지난 학기(2018년도 1학기)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학생의 장래희망 교육수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할 계획입니까?

3.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과 SPSS macro PROCESS 3.5를 활용하였다.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SPSS를 활용하였으며,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 Kenny(1986)의 방법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2]).



[그림 1] 학업열의 매개모형



[그림 2] 학업무기력 매개모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표 2>). 학업열의는 M=2.4721, SD=0.5521, 학업무기력은 M=1.8881, SD=0.5344, 교육적 기대는 M=3.3112, SD=0.6622, 학업적 자아개념은 M=3.2506, SD=0.7425이다.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절대값 2, 7을 넘지 않으므로 자료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었다(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표 2> 기술 통계 분석 결과

	M	SD	왜도	첨도
1. 학업열의 (n=2590)	2.4721	.5521	.053	.315
2. 학업무기력 (n=2590)	1.8881	.5344	.283	.018
3. 교육적 기대 (n=2587)	3.3112	.6622	.050	-.270
4. 학업적 자아개념 (n=2566)	3.2506	.7425	-.139	-.130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3>). 학업열의는 학업무기력과 부적상관($r=-.635, p<.01$)이 있었고 교육적 기대($r=.416, p<.01$)과 학업적 자아개념($r=.488, p<.01$)과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학업무기력은 교육적 기대($r=-.333, p<.01$)과 학업적 자아개념($r=-.364, p<.01$)과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r=.594, p<.01$)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표 3>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1. 학업열의 (n=2590)	1	-.630**	.416**	.488**
2. 학업무기력 (n=2590)		1	-.333**	-.364**
3. 교육적 기대 (n=2587)			1	.594**
4. 학업적 자아개념 (n=2566)				1

** . $p<.01$

2. 매개효과

1) 학업열의 매개효과

먼저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분석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1단계에서 교육적 기대가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beta=.594(p<.000)$ 이었다. 이는 교육적 기대가 증가할수록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2단계에서 교육적 기대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은 $\beta=.420(p<.000)$ 으로 역시 교육적 기대가 증가할수록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3단계에서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먼저 학업열의의 효과는 $\beta=.290(p<.000)$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적 기대가 $\beta=.472(p<.000)$ 로 1단계 $\beta=.594$ 보다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4> 학업열의의 매개효과(n=256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SE	t	R ²
1	학업적 자아개념	교육적 기대	.667	.594	.018	37.339	.352
2	학업열의	교육적 기대	.349	.420	.015	23.401	.176
3	학업적 자아개념	교육적 기대	.529	.472	.019	28.510	.422
		학업열의	.390	.290	.022	17.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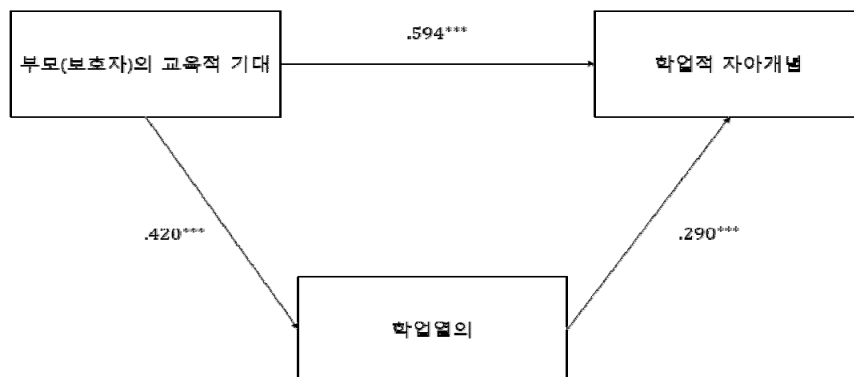
*모든 측정값은 $p < .000$ 수준에서 유의함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측정횟수는 $n=10,000$ 으로 설정하였다. 매개효과의 값은 .1216이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1045)과 상한값(.1401)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표 5>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인	매개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BootLLCI	BootULCI
학업열의	.1216	.0090	.1045	.1401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의 결과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3]).



[그림 3] 학업열의 매개모형 결과값

2) 학업무기력 매개효과

다음으로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분석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1단계에서 교육적 기대가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beta=.593(p<.000)$ 으로 나타났다. 2단계 교육적 기대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beta=-.337(p<.000)$ 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적 기대가 증가할수록 학업무기력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3단계에서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 관계에서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면, 먼저 학업무기력의 영향은 $\beta=-.186(p<.000)$ 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기대의 효과는 1단계 $\beta=.593$ 에 비해 $\beta=.531(p<.000)$ 로 감소하였다. 즉,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 관계에서 학업무기력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n=256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SE	t	R ²
1	학업적 자아개념	교육적 기대	.666	.593	.018	37.339	.352
2	학업무기력	교육적 기대	-.271	-.337	.015	-18.098	.113
3	학업적 자아개념	교육적 기대	.595	.531	.019	32.213	.383
		학업무기력	-.260	-.186	.023	-11.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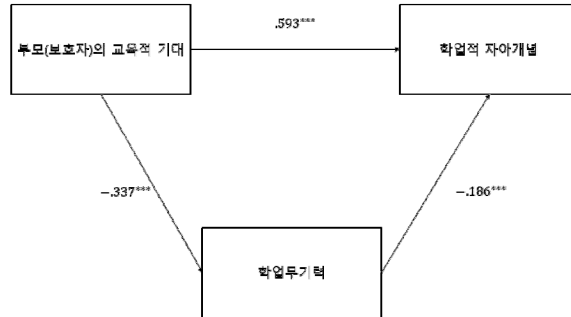
*모든 측정값은 $p<.000$ 수준에서 유의함

학업열의와 마찬가지로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측정횟수는 n=10,000 으로 설정하였다. 매개효과의 값은 .0627이었고, 95% 신뢰수준에서 하한값(.0486)과 상한값(.0758)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7>).

<표 7>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인	매개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BootLLCI	BootULCI
학업열의	.0627	.0069	.0486	.0758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의 결과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4]).



[그림 4] 학업무기력 매개모형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열의, 학업무기력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확인하고,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과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각각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1차 자료(KCYPS 2018)데이터의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열의, 학업무기력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업열의는 학업무기력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학업무기력은 교육적 기대, 학업적 자아개념과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번째로,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효과의 크기는 .1216이었다. 이는 교육적 기대가 학업적 자아개념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교육적 기대가 학업열의를 매개하여 학업적 자아개념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교

육적 기대와 학업성취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김난옥, 김양분 2015; 김마리아, 2013; 김수혜, 황혜정, 2010; 박영신 외, 2004; 심수경, 2015; Carranza, F. D, et al, 2009, Mau, W. C, 1997; Froiland, J. M, et al, 2013; Jackson, L. J, et al, 2020). 한편, 권현자(1988), 권재기(2001), 김선희(2015), 김마리아(2013)의 경우 부모의 교육적 기대수준을 측정된 문항은 부모가 직접 표현한 것이 아닌,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부모의 교육적 기대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부모가 실제로 생각하는 자녀의 학업성적만족도, 학업성취, 희망교육수준이 반영된 것이 앞선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Chen(2005), Furrer. C. & Skinner, E. (2003), Plunkett, S. W., et al. (2009)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개입, 참여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난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선헤연 외, 2011; 이미라, 전향신 2020). 한편 국내연구에서는 주로 학업열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학업열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분석되었고(김혜원, 장윤옥, 2016; 임호진, 이소라, 2020)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 관계에서 학업열의를 매개로한 연구가 적게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는 국내 학생들이 대상인 연구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한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업무기력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효과의 크기는 .0627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증가할수록 학업무기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업무기력도 증가할수록 학업적 자아개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매개한 효과는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나게 된다. 관련 선행연구들이 부모관계와 학업무기력의 관계(박연수, 2019; 임경희, 2004), 학업무기력과 학업성취의 관계 연구(고재량, 2012; 김은영, 2009; Diener, C. I., & Dweck, C. S. 1978; Fincham, F. D. et al. 1989)에 그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 관계에서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를 나타낸 것이 앞선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이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보호자가 자녀의 학업성과 희망교육수준에 기대를 가지는 것이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학업열의 또는 학업무기력을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업열의는 학업무기력보다 상대적으로 매개효과가 크게 작용하였다. 한편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학업열의에는 정적인 영향을, 학업무기력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보호자의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하여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국내 선행연구와 국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관계 또는 양육태도에 따라 부모의 관심 또는 영향력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김남희, 이정운 2013; 김진아, 2016), 학업무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박연수, 2019; 임경희, 2004). 이는 양육태도에 따라 보호자의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본 연구는 보호자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 관계를 분석하는데 반영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에 대해서 실제로 자녀가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로 보호자의 양육태도를 주요 변수로 반영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교육적 기대가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보호자가 학생인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보호자와 자녀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재량. (2012).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 및 인터넷중독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이랑, 김경성, 이수영. (2016). 초등학생의 다중지능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과 학문적 자아개념 간의 관계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 301-311.
- 권은경. (2020). 중학생의 학업열의, 학업소진 관련 변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11), 123-127.
- 권재기. (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과외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현자. (198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난옥, 김양분. (2015).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53(3), 31-60.
- 김남희, 이정윤. (2013).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중학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Korea Journal**, 21(1), 211-231.
- 김마리아. (2013). 부모의 교육적 기대수준이 자녀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2), 117-139.
- 김선희. (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 학업성취와 행복 인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혜, 황여정. (2010). 가정배경, 사회심리학적 매개요인들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16(1), 153-182.
- 김용래, 김태은. (2001). 학업/비학업자아개념, 학교태도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탐색. **교육연구논총**, 18, 3-46.
- 김은영. (200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학습된 무기력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아. (2016).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계. **상담학연구**, 17(2), 303-326.
- 김혜원, 장윤옥. (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5), 99-117.
- 박남수, 박서홍. (2010).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개념과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에 따른 영어 교과 사교육 효과 분석. **미래교육학연구**, 23, 35-56.

- 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 박상현, 손원숙. (2019). 초등학생의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상호관계. **아시아교육연구**, 20(4), 921-942.
- 박연수. (2019).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역기능적 태도 및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37-59.
- 성인경. (2017).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혜연, 황매향, 정애경. (2011). 부모의 관여가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2(1), 21-43.
- 심수경. (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태철, 임효진, 황매향. (2017). 중학생의 자기통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습된 무기력과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3(1), 315-341.
- 염혜선, 이은주. (2020). 중학생의 학업열의, 또래관계 질, 공격성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의 시너지 효과. **교육심리연구**, 34(3), 521-541.
- 이미라, 진향신. (2020). 부모의 양육태도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그릿, 학업열의, 학업성취도와와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 779-805.
- 이수정. (2009). 부모의 성취 압력과 학업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자영. (2013). 학년에 따른 학업열의의 잠재평균 차이 검증. **청소년학연구**, 20(2), 1-21.
- 임경희. (2004). 가정, 학교 및 개인변인과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473-507.
- 임효진, 이소라. (2020). 그릿 (Grit) 을 매개로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부모, 교사, 교우 변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한국초등교육**, 31(1), 109-127.
- 조수현, 이민영, 이장희, & 이상민. (2018). 고등학생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연구: 직무요구-자원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4(3), 1-26.

- 조한익, 이현아. (2010).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2), 131-154.
- 최현정, 이동귀. (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학교**, 16(2), 189-205.
- 홍혜선. (2012).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황은주, 윤선아.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525-54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Carranza, F. D., You, S., Chhuon, V., & Hudley, C. (2009).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ASPIRATIONS: THE ROLE OF PERCEIVED PARENTAL EDUCATIONAL INVOLVEMENT, ACCULTURATION, AND SELF-ESTEEM. *Adolescence*, 44(174).
- Chen, J. J. L. (2005). Relation of academic sup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peers to Hong Kong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role of academic engagement.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31(2), 77-127.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Diener, C. I., & Dweck, C. S. (1978). An analysis of learned helplessness: Continuous changes in performance, strategy, and achievement cognitions following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5), 451.
- Fincham, F. D., Hokoda, A., & Sanders Jr, R. (1989). Learned helplessness, test anxiety, and academic achievement: A longitudi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138-145.
- Froiland, J. M., Peterson, A., & Davison, M. L. (2013). The long-term effects of early parent involvement and parent expectation in the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4(1), 33-50.

- Furrer, C., & Skinner, E. (2003).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48.
- Jackson, L. J., Ford, J. R., James, B. A., Schleiden, C. A., Harris-McKoy, D., & Holcomb, J. E. (2020). Expect the Best; Not the Worst: The Impact of Parental Expectation on Black Males' Math Scores. *Journal of Black Studies*, 51(8), 767-789.
- Mau, W. C. (1997). Parental influences on the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comparison of Asian immigrants, Asian Americans, and White Americans. *Psychology in the Schools*, 34(3), 267-277.
- Plunkett, S. W., Behnke, A. O., Sands, T., & Choi, B. Y. (2009). Adolescents' reports of parental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2), 257-268.
- Song, I. S. (1982). The dimensionality and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England, New South Wales, Australia.
- 아동의 스트레스(9-17세). 2018.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21&conn_path=I3 (2020.05.05. 인출).
- 자살 생각 여부 및 자살의 큰 이유. 2018.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청소년사회환경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628&tblId=DT_628003_A007&vw_cd=MT_ZTITLE&list_id=210_210A_628_3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0.12.25. 인출)
- 학교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이유. 2019.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717&tblId=DT_717003_015&conn_path=I3 (2020.05.05. 인출).
- 학업 유지에 대한 견해 &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2019.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797&tblId=DT_797003_A1000&conn_path=I3 (2020.05.05. 인출).

Abstract

Influence of Guardian Expectations on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Self-Concept: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Engagement and Learned Helplessness

Hyoje Cho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2,590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 2018)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engagement and learned helpless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uardians'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self-concep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ademic engagement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learned helplessness and positive correlations with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academic self-concept. Learned helplessnes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academic self-concept. Educational expectation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elf-concept. Nex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expectation and academic self-concept,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engage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expectation and academic self-concept,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ed helplessn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guardians' educational expectation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ademic self-concept of children who are stu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ach academic engagement and learned helplessness had a positive effect. Therefore, guardians' educational expectation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children's psychological state and academic self-concept through academic engagement and learned helplessness.

Keywords: educational expectation, academic self-concept, academic engagement, learned helplessness, mediating effect

논문투고일자: 2020.11.30.

논문심사일자: 2020.12.20.

게재확정일자: 2020.12.28.